

쿠팡 착한상점 누적매출 3조 돌파... 지역·입점사와 '상생'

입점 중소기업인 연매출 3배 ↑
쿠팡Inc 전체 성장률 29% 상회
상품 58만개... 전년비 26% 늘어
지방 농어촌·중소상공인 판로개척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

쿠팡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누적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와 생산인구 감소, 판로채널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어온 전국 중소기업인과 지역 농어촌이 쿠팡을 통해 빠르게 경영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착한상점 누적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 3조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첫 론칭한 착한 상점은 2023년 말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조원의 추가 매출을 내며 전년 대비 3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한해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 0.

57% 역성장했다(한국신용데이터).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위기 속에 쿠팡 착한상점이 고성장이 가능한 판로를 연 셈이다. 착한상점 중소기업인들의 매출 성장률은 쿠팡Inc의 2024년 전체 성장률(29%, 원화기준)도 크게 상회했다.

착한상점은 지방농어촌과 중소기업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으로 쿠팡은 이들에게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다. 김·감·과메기 같은 지역 고유의 특산품부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에서 만든 식품·공산품 등이 총망라돼 있다. 지난해 쿠팡 고객들에 선보인 착한

상점 상품은 58만개로, 2023년(46만개) 대비 26% 늘어났다.

착한상점의 최대 장점은 품질력만 우수하면 지속적으로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되면서 주문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착한상점은 '로켓프레시'나 '로켓배송' 같은 쿠팡의 메인 탭과 함께 쿠팡 앱 메인 화면에서 고객들에게 안내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동남성장위원회를 비롯 24개 기관·지자체와 협업해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테마를 꾸려 특별한 기획전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는 충주사과·나주배·김천포도 등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을 대상으

로 한 '지리적표시 특별기획전', 여성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등의 기획전을 46차례 실시했다. 현재 쿠팡 전체 판매자 중 약 70%는 연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2250만 명에 달하는 쿠팡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에 기반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대형 인기 베스트셀러와 경쟁할 수 있으며, 다른 유통채널에서 노출기회를 받지 못해 낮은 인지도를 쿠팡으로 끌어올리면서 매출과 고용인력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직매입하는 로켓배송의 경우, 판매·배송·고객 민원 부담을 더는 것도 장점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시작한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인들의 매출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립 새 콘셉트 포켓몬빵 '포켓피스 시리즈'

삼립은 새로운 콘셉트의 포켓몬빵 '포켓피스(Poke'peace) 시리즈(사진)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포켓피스'는 포켓몬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공간(셰어하우스)을 테마로, 여유롭게 낮잠을 자거나 특별한 날 파티를 즐기는 포켓몬들의 일상을 담은 새로운 시리즈다. 플레이 세트(장난감)로 먼저 출시돼 문구류·이모티콘 등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균형 잡힌 휴식과 여유를 추구하는 라이프 트렌드에 따라 포켓몬빵 '포켓피스 시리즈'를 선보였다.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이 발린 촉촉한 케이크 '화이트 바닐라빈 롤케이크', 당종 기법을 사용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빵에 달콤한 화이트 크림을 넣은 '스윗화이트미니샌드', 바삭한패스츰리에 달콤한 화이트 훈당(설탕물)을 토핑한 '화이트 슈가 패스츰리', 달콤한 초코 빵에 촉촉한 초코칩 앙금을 넣은 '쫄득 초코 쌍둥이' 등 6종이다. /신원선 기자

G마켓·CJ대한통운 '스타배송' 이벤트 16일까지 경품·혜택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CJ대한통운과 함께 '스타배송' 이용 고객을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배송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단독 특가 상품도 제안한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도착보장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는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스타배송 역시 일요일 배송을 시작, 주7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타배송은 G마켓이 보유한 동탄물류센터에 입고된 14개 카테고리, 약 15만개의 상품에 적용된다.

G마켓은 스타배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배송은 오네로 오G' 행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협업 파트너인 CJ대한통운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경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제품을 고르면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으로 '로보락 로봇 청소기',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등도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롯데디자인즈 유니폼·응원도구·굿즈 선봬

자이언츠와 맞손, 브랜드관 오픈
신규 굿즈 마련, 특별 기획전 계획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 /롯데온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롯데디자인즈와 손잡고 공식 브랜드관을 오픈한다. 롯데온만의 계열사 간 게이트웨이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롯데온은 5일 오후 3시부터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을 마련하고 공식 유니폼을 비롯해 응원도구와 생활잡화 등 주요 굿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스포티·캐주얼 라인 의류는 추후 출시된다. 또한 신규 굿즈와 특별 기획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온은 이달 중순 롯데디자인즈,

롯데시네마, 롯데면세점 등 롯데 계열사의 혜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매장 '엘타운(L.타운)'도 오픈한다.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도 엘타운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앞으로 롯데디자인즈 팬들은 롯데온의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에서 편리하게 자이언츠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롯데온 앱에서 메인 화면의 럭메뉴 롯데디자인즈 로고를 클릭하면

나 '롯데디자인즈'를 검색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월간롯데를 진행하며 다양한 계열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롯데온은 올해도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썩으면 씹어피터진다'를 진행하며 롯데GRS 엔제리너스, 롯데시네마와 협업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했다.

롯데온 시너지마케팅실 김은수 실장은 "올해에도 롯데온만의 게이트웨이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준비했다"며 "롯데온의 롯데디자인즈 공식 브랜드관에서 다양한 굿즈를 편리하게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로 확대

대기업 최초 제도개편 나서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롯데백화점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

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서, 임직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개월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녀를 대상으로 양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한 부모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여야 한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百, 봄 맞이 전시·공연 등 마련

'블루밍 플레이리스트' 봄 캠페인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24일까지 '블루밍 플레이리스트(BLOOMING PLAYLIST)' 봄 캠페인을 열고 봄맞이 전시·미디어 아트·공연·제철 식재료 등을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봄을 알리는 공연인 '신세계 블루밍 콘서트'가 펼쳐진다.

21~24일, 28~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신세계 블루밍 콘서트는 봄꽃이 피어나듯 고객의 마음에 설레고 행복한 순간을 피어나게 하고, 예술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인 미니 콘서트이다.

신세계는 올 봄에도 아티스트 임태

현, 장민제, 신의정 등이 펼치는 미니 뮤지컬 콘서트부터 창작 국악, 색소폰 앙상블 등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고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봄맞이 전시와 미디어 아트도 선보인다. 내달 20일까지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Art & Science) 6층 대전신세계 갤러리에서는 따스한 일상의 행복과 반려 동식물과의 교감을 표현한 수채화·관화·일러스트 등의 작품을 소개하는 '투게더(Together)! 슬기로운 반려생활' 전시가 펼쳐진다. 가을, 김서을, 드로잉메리 등 국내 10명의 작가가 봄 일상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풍경과 반려 동식물이 주는 평온함과 교감을 통한 위로를 고객들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